

북한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박 성 희*

- I. 서 론
- II. 북한의 청소년 정책
- III. 결 론

I. 서 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는 국내외적 여러 요인에 의해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 동유럽의 붕괴 그리고 소련체제의 대변혁과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북한의 UN 동시가입과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보다 신축성있는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음악, 영화, 체육등 각종 교류가 남북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각분야별 단체, 개인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호 왕래하는 횟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증진의 기

회가 과거보다 많아져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민족 공동체적 사고속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체제가 상이한 남북간의 통일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는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일민족으로서 공통된 경험하에서 고도로 동질적인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이를 계승해 왔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후 약 반세기동안 남북한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서로 상반되는 정치이념체제속에서 상호 단절된 생활을 영위해 온 결과 각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질적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화된 생활로 인해 의식상의 차이가 커져서 민족적 일체감, 공동운명체라는 민족감정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상호 대립과 갈등속에서 서로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되어 상호대립적인 이념과 생활방식을 채택한 지 약 반세기가 흐른 오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늘날, 분단이후 출생한 인구가 1990년 기준으로 남한은 78.7%, 북한은 83.5%로서 각 사회의 주도적 인구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 각 계각층에서 주도적인 정치, 사회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세대들은 남북분단의 비극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로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통일관 내지 가치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민족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이질화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민족 분열과 상극현상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에 위기를 초래하고 민족 통일이란 과업을 완수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커다란 장애요소인 남북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남북통일이라는 실천적이고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이념체제의 양극화로 빚어진 민족분열의 심층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상반되는 양체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 양자가 공유하는 공감대아래서 공통된 원리를 찾는 것은 통일대업의 출발점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이념, 문화 및 사회생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올바른 지식과 이해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이 되며 나아가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

통일예의 민족적 열망과 이에 따른 국가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북한에 관한 연구활동이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괄목할 만한 많은 연구업적이 생산되었다. 그 결과, 북한 사회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북한연구는 주로 역사, 정치, 법률, 행정, 외교, 군사, 대남전략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통일 후계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물론, 청소년분야에 관한 자료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입수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도 있겠지만,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그 중요성에 비해 학계의 상대적 무관심속에서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청소년들간의 동질성회복이 무척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통일 문제를 결정하고 통일조국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적 규범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남북대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민족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성격을 그 사회의 청소년정책의 결과로 볼 때, 북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 정책의 마련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청소년 정책을 살펴본 후 이 정책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밝히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장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육성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육성을 국가적 관심의 주 대상이 되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

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사회체제를 형성하는데 미쳤던 역사적 요인들(맑스·레닌주의이론, 문화적·경제적·역사적 환경)과 현재적 요인들(통치이데올로기적 영향, 정치적 지도자의 유형, 정치과정, 정치사회와 경제발전, 국제정치등 여러 사회적, 정치적 과정등), 그리고 각종 구성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구조적 특성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접근하기에는 연구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북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현황을 비롯하여 정책의 이념과 방향, 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 기본 방향 그리고 관련활동사업등 기본적인 요인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제한된 테두리안에서 극히 가설적으로 북한 청소년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혀 통일을 위한 정책(청소년 정책 내지 통일 정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적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지 북한 청소년 정책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이념적 관점에 따른 일방적 평가나 가치 판단은 배제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북한 청소년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따라서, 비록 북한이 남한과 동일한 역사적 토대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남한과는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그 나름대로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특징을 이루고 있는 사회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즉,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북한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려고 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그러나 북한연구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료의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북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 북한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북한 현지연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모든 정보와 자료들은 거의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되어 경험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내에 입수된 자료들조차 안보적 차원에서 연구자료에의 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간접적 자료 또는 2차 자료 만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이다.

더구나, 그동안 북한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특정분야나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저조한 상태이다. 게다가 청소년에 관한 연구일지라도 내용상으로는 교육, 사상교육, 정치사회화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 분석이나 실태보고, 문제점 지적, 규범적 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연구들이 주로 홍보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상당한 연구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연구자체가 학문적 객관성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점에 의해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 정책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요인들만 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쳤다. 또한 자료의 빈곤과 불분명한 자료에 의해 느낌을 바탕으로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몇 개의 사실만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사실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무리를 가져온 점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론적 접근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여 북한 청소년 정책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통일에의 민족적 열망이라는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 연구는 북한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가치가 있고 본다. 남북통일의 문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소 못지않게 청소년의 문제가 무시 못할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가 민족통일이란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청소년 정책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남북한 청소년들이 기성 세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결하고 경쟁하며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질성을 극복하고 국가적 재결합을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II. 북한의 청소년정책

1. 청소년 현황

북한에서 청소년이란 용어는 아동, 어린이, 소년, 젊은이, 청년등과 같이 다양하며, 어린이와 어른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연령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공산주의 교육과 동시에 소년단원으로 사

회생활이 시작되는 만6세부터 소년단의 조직생활이 끝나는 만13세의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의 소년기와 '사회주의 노동청년'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사회활동을 하는 만14세부터 27세까지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층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대상은 0세부터 27세까지, 즉 출생부터 초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의 인구는 1990년 기준으로 약 1,353만명으로 전체인구 2,141만명의 63.2%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청소년인구는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북한의 연령별·성별 인구(1990)

(단위 : 천명)

연 령	전 체	남 자	여 자
0~4	2,302	1,175	1,127
5~9	2,046	1,043	1,004
10~14	1,949	991	958
15~19	2,532	1,284	1,248
20~24	2,658	1,343	1,315
25~29	2,042	1,204	1,017
30~34	1,875	940	935
35~39	1,381	691	690
40~44	1,101	549	552
45~49	901	447	454
50~54	758	346	412
55~59	620	270	351
60~64	450	181	269
65~69	330	126	204
70~74	224	83	141
75+	243	77	165
계	21,412	10,568	10,844

자료 : Eberstadt and Banister, 1990, p.192.

학령전 모든 어린이들은 생후 3개월 후부터 5세까지 탁아소 및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는다. 취학전 유치원 교육 1년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도합 11년간의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대부분은 거의 모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과정인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만 16세), 청소년들은 성분과 당성에 따라 대학 및 특수학교, 군대, 직장 등 각각 다른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 가운데 약 10%가 대학이나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약 20%가 직장에 배치되며 나머지 약 70%가 군대에 입대(17~20세)하게 된다.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 출신성분이 확실한 현직 당간부 자녀이거나 배경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약 10%가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주어지며 나머지는 거의가 군에 입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자의 70%가 제대군인이고 20%는 직장인이며 나머지 10%가 직통생(곧바로 진학)이다(김동규, 1990: 429). 이는 북한제도가 고등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군복무를 마치거나 수년간 직장에 근무한 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때문이다.

군입대는 일종의 권리와 의무로서 군대생활의 기회를 북한 주민 진부에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약 70%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셈이다(김병린, 1986: 7). 군입대자는 만 16세에 신체검사를 받은 후 징집에 응하게 되는데 보통 신체검사 합격자라 하더라도 군사동원부 계획에 의거하여 일단 각 직장에 배치되어 2~3년간 근무한 후 군에 입대하게 된다. 현역근무 기간이 보통 3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5~10년씩 복무한 후 27세가 되어야 제대할 수 있다(국토통일원, 1991: 416).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를 받게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해야 대학진학이 비로서 허용된다.

대학과 특수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졸업 10일전에 학교에서 각자의 희망직업을 파악하여 군노동과에 통보하면 군 노동과 노동지도원의 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배치된다(도홍렬, 1978: 154). 그리고 만 20세가 되면 군입대가 면제되어 직장교도대에 편입된다.

북한 청소년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식 양육과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적 규범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는 소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다.

즉 북한 청소년들은 집단주의 정신, 계급의식과 혁명정신, 노동애호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정신 등 공산주의적 품성과 태도로 무장한 순수한 공산주의자로서 김일성과 당에 무조건 충성하고 절대복종하는 혁명가로서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양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엄격한 조직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공산체제에서 청소년들의 모든 활동들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어 청소년들은 집단위주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유아기부터 탁아소 및 유아원에서 동년배와의 조직생활에 익숙하여진 이래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외 노력동원, 군사훈련, 소년단 및 사노청등의 각종 단체나 조직활동, 각종 행사와 과외활동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다(표 2 참고).

〈표 2〉 주별활동계획표(기본)

일	활 동 내 용	비 고
월	사회봉사의 날	노력동원, 계몽선전
화	회의의 날(각종회의)	간부회의 수시
수	문화의 날(영화감상, 사상성 위주 문학, 회상기학습)	
목	위생의 날(환경, 미화)	노동동원의 대처
금	기술연마의 날(공장견학, 실습)	"
토	체육의 날(각종 체육)	준 군사훈련
일	오전자습, 오후 자유시간	대학생 기숙사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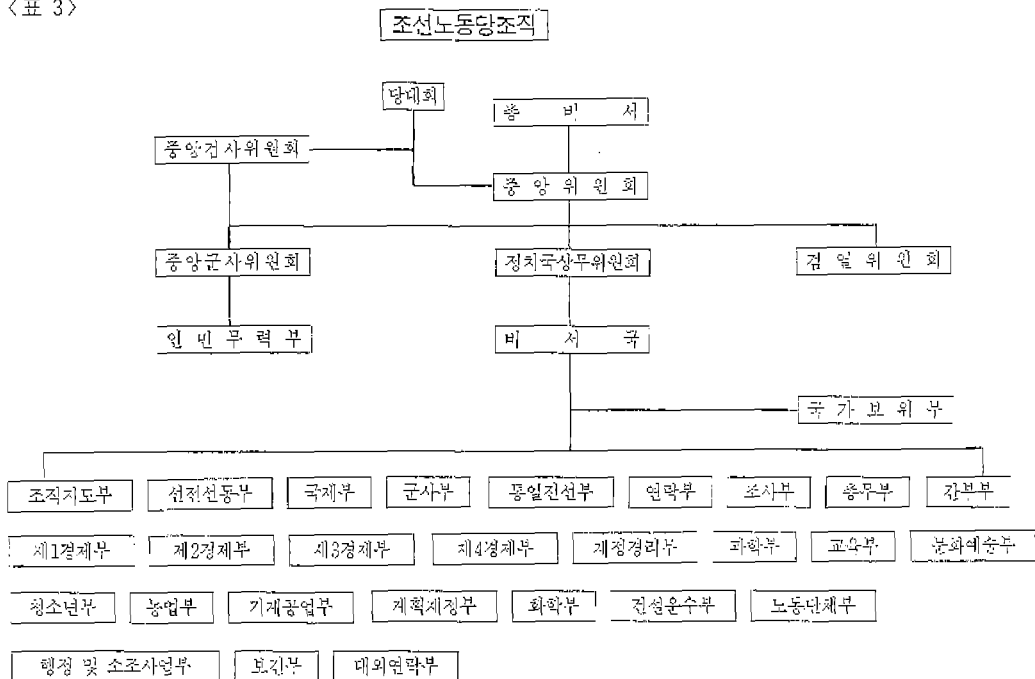
자료: 「북괴군 정신전력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6, p.45.

북한 청소년들은 정치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당이나 정치체제에 대한 일체감과 지지도가 높다. 이에 북한 청소년들은 누구나 공산주의 전형이 되고 싶다는 포부와 되겠다는 기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려는 동기가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입장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당지도원칙과 혁명적 이념에 스스로 동조하는 생활을 되풀이 하고 있다.

2. 정책의 결정 및 집행기구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법칙은 헌법상으로는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입법기관인 최고 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북한 헌법 제 76조 2항).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노동당이 권력구조의 지도적 핵심을 이루고 있기

〈표 3〉



때문에 노동당이 모든 정책의 근원으로서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박완선, 1989; 이호준외, 1989). 그러므로 인민의 대의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당이 결정한 일방적 정책만을 추인하는 형식적 기구로서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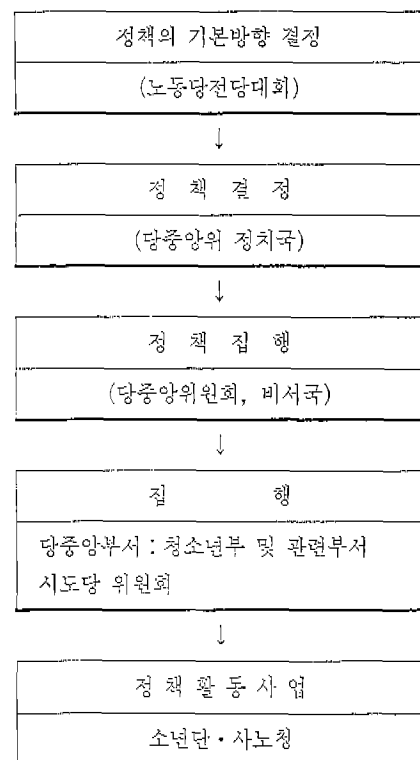
노동당 조직 가운데 최상의 기구는 당대회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3 참고). 그러나 이는 상설기구가 아닌 형식상의 기구로서 실제로는 당의 모든 결정사항을 추인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당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국가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상정되어 있는 당 중앙위원회로서 북한의 제반 정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당 중앙위원회도 6개월에 1회 정도로 소집되기 때문에 당 중앙위원회 휘하의 정치국과 비서국이 당의 모든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국은 노동당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비서국은 당의 모든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한다(정현수, 1990: 143). 또한 비서국 휘하에는 소관별 각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국과 비서국을 당정책의 핵심적 결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의 핵심체라 절대 권력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조선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핵심으로서 북한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여타의 다른 기관들을 지배하는 공식적인 조직체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김일성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당과 국가기관을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정책결정 과정이 김일성의 개인적인 지도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일성

은 당에서 총비서, 당 정치국원 행정에서 국가 주석, 중앙인민회의의 수위까지 당책과 행정책을 독점하고 당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까지 독점하여 군 통수권을 장악하므로써 일인 독재의 기반을 확립하였다(이호준외, 1989). 결국 김일성은 카리스마적 존재로서 당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관점과 노선대로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은 김일성 1인에 의해 지휘, 감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정책을 국가가 지도하고 계획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청소년 정책을 국가의 역점사업으로 치중해 왔으

〈표 4〉 북한의 정책결정·집행과정



며 중점적인 통제분야로 삼아 왔다. 노동당은 당의 정치지도이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표4 참고).

다른 일반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은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이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비서국이 총괄적인 지휘를 하며 제반지도 감독을 한다. 청소년 정책의 결정은 형식상 각급 당위원회의 회의 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나, 김일성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을 김일성의 교시 또는 명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비서국의 '청소년부'에 의해 청소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지도되며, 통제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 정책은 '국가정책의 총체'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청소년부외에 각 관련 부서별로 청소년 정책의 대상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은 '교육부'가, 군인청소년과 청소년들의 군사교육은 '군사부'가, 노동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교육은 '노동부'가, 대중매체는 '선전선동부', 문학과 예술의 문화활동은 '문화예술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분산된 청소년 업무는 당 중앙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각 부서가 지휘하고 있는 여러가지 영역의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청소년 사업과 활동은 노동당의 주도하에 개인보다 단체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여러 단체들은 당의 정책을 인민들에게 직접 침투시키는 전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당의 외곽단체들이다. 청소년들과 관련있는 단체로는 소년단, 사노청, 직업동맹,

여맹, 붉은 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동적위대 등이 있다.

3. 정책의 이념과 목표

북한의 모든 정책활동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당면 목표아래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앞에서 설명한 체제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독재체제의 확립이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정책도 이러한 체제 전반의 종합적 목표내에서 구속되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북한사회의 기본 구성원칙인 공산주의 이념아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기여 할 수 있는 인간,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이념과 인간관은 한결 같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이나 '조선 노동당 규약', 어린이 보육 교양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그리고 각종의 '김일성 연설문'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시종일관하여 달성하려는 공산주의적 인간상이란 '사회의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인간을 의미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 헌법). 이는 북한 공산당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현대 과학과 기술(지),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품성(덕), 그리고 국방과 노동에 종사하기에 튼튼한 체력(체)을 가진 인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내세우는 공

산주의적 인간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혁명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이 된다. 결국 청소년 정책이 겨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차적으로 현존 정치 체제(김일성 체제)의 존속과 유지, 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서 본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혁명위업의 계승자’, ‘어린 혁명전사’, ‘당과 인민의 아들, 딸’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혁명을 이어 나갈 해방세대로서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대가 되어야 하는 막중한 사회적 임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권력의 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하기 때문에 북한은 청소년들의 심신 발달이나 능력, 혹은 잠재력 개발 또는 여가생활을 위한 청소년 복지정책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제적인 청소년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북한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행복에 기여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 및 질서가 낡은 가치와 사회관계 및 경제질서를 대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혁명적 사회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분단이후 기존체제의 파괴 위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는 발상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품성을 가진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는 혁명과업의 효과적 수행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청년생활, 1963. 12: 26~27).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조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비극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은 전통적인 한국유산을 지니고 있고 일제시대 사회적 경험을 남기고 거기다 6.25를 통한 남한의 생활풍토를 알고 있다(고영복, 1978: 192). 때문에 그들의 성격구조의 심층에는 비공산주의적 응어리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복고적 향수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공산화 이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은 구 세대들의 낡은 풍습과 사고방식, 부르조와 사상의 오염도가 낮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기성세대들의 인성을 변혁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완전히 개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은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다고 보고 청소년 육성에 국가적 관심을 보이고 주요한 정책과제로써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청소년 사업을 선행시키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교육교양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1년제 의무 교육제 실시 등은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철저한 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공산주의 사

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청소년정책의 핵심이요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을 위한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겠으나 대개 전체 사회계획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청소년 층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청소년들을 사회전체 목표에 맞게 조직화하여 전체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대로서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내외 정세의 변화로 몇차례 변화되어 왔으나 공산정권 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취하고 있는 기본정책이 있다. 이제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특수한 전문영역을 가진 독립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종합정책으로서 국가의 일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이 되어 왔다. 청소년정책은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 국가정책의 총체로서 정치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군사정책, 문화정책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종합정책으로서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보아 의식개혁, 경제건설, 조국방위의 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실시되어 왔다. 또한, 정치와 교육의 일체론에 입각하여 교육을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로 보고, 교육을 최우선시하여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교육사업을 선행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교육활동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새로운 경제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1) 의식개혁을 위한 사상교육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그 세계관 아래 자기 생활과 사상을 통일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전혀 달라 조화될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으로는 공산주의 인간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공산주의 사상자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많은 사회개혁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체제와 제도만의 개혁으로는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의식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다.

사상교육이란 공산주의의 기본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그러한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태도를 형성하여 공산주의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상교육은 공산주의 이념아래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성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과거의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정치사상교육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혁명위업의 계승자가 되는 청소년들을 철저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혁명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상교육은 북한의 모든 교육과 훈련과정의 중심요소로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교에서는 물론 모든 직장, 군대, 마을, 가정단위의 교육에까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상교육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공통필수로 취급되어 그 비중은 인민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사상교육은 전체의 평균 25%이고, 인민학교에서는 76%, 특수대학에서는 79%를 차지하고 있다(도 홍렬, 1978).

사상교육의 내용은 크게 공산주의 사상에 관련되는 내용, 김일성우상화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특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박용현, 1973: 90). 공산주의 사상학습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정치경제학, 공산주의 도덕,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성과 공산주의 사회체제의 우월성, 계급의식과 혁명정신, 집단주의 정신, 노동애호사상, 사회주의적 애국정신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 공산주의 이론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우상화에 관련된 내용은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 김 일성의 혁명활동과 투쟁사,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한 당정책, 김일성의 국내외 공산당지도활동, 김일성의 유년시절, 김일성일가의 혁명활동, 김일성의 연설문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상교육은 의도적, 비의도적 활동을 통해 호전적 성격(충동적, 공격적, 투쟁적, 폭력적, 혁명적 등), 독재적 성격(강제, 명령, 박종, 비난, 비판, 강요 등), 경쟁적인 성격(불신, 적개심, 감시, 고자질, 음모, 음흉 등)과 같은 행동 특성을 길러준다.

사상교육의 내용은 학교, 학교급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학교, 학년수준이 낮아 질수록 김일성 우상화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며 더 많이 취급된다. 또한, 사상교육내용에 따라 교육활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북한의 모든 교육활동은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상교육은 정규 수업활동을 통해서 뿐 아니라 노동교육, 군사교육 및 훈련, 소년단이나 사노청과 같은 학교내에서의 정치조직활동 그리고 각종 정규 및 임의적 행사활동, 각종 과외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상교육 및 모든 교육활동은 언어와 행동의 통제, 집단위주의 원리, 경쟁의 원리, 자아비판의 원리, 상호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공개적 비판의 원리 등 다양한 교육방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2) 경제 건설을 위한 노동교육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폐쇄경제로서 '주체'라는 명목하에 자립적 경제건설을 이루려고 시도해 왔다. 노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 하는 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여 노동을 통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여 왔다. 생산노동을 기간적 과제의 하나로써 간주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획적 생산 협동화와 집단적 노동동원의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노동을 전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여(북한헌법 제 69조) 다양한 경제활동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천리마 운동, 10대 과업완수 운동, 속도전, 3대 혁명 붉은기 생취운동과 같은 노력 경쟁 운동과 속도전 붉은 청년 돌격대, 2.17과학자 돌격대 등 각양각색의 돌격대

를 조직하여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고 있다(국토통일원, 1989: 61)

이용가능한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고 있는 북한 체제하에서는 청소년들을 경제건설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부과하여 청소년들이 노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과제를 결정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의 부진 타개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강조하여 생산부진 부문과 힘든 일에 청소년들을 집중투입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청소년들을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생산노동의 중요한 분담을 할 수 있는 건설 일꾼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형성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한 노동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을 적극 동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노동능력으로 평가하고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만이 공산주의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주입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동에 호정신과 노동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 노동교육은 청소년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일하는데 버릇이 되어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노동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교육의 목적은 첫째 노동에 대한 애착심과 자율적 습관을 길러주고, 둘째 노동체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셋째 어떠한 육체적 고통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주고, 넷째, 노동을 통하여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체득시키며, 다섯째 생산노동과 건설에 직접 참여시켜 국가 공공재산에 대한 애호심을 길러 주는데 있다(국토통일원, 1973: 71). 따라서 노동교육은 청소년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시키고 사상혁명의 작업(노동교

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최적 정책수단이 된다.

노동교육은 정규과목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많이 취급되기도 하지만 '이론과 실천의 교육의 결합' 즉,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원칙하에 학교내의 시설이나 인접공장이나 농장을 이용한 실제의 노동실습을 실시한다. 북한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라는 교육원리를 도입하여 1959년부터 고등중학교 이상 학생들에 대한 '학생사회의무노동제'를 합법화하여 각급 학교별로 연간노동일수를 규정하여 의무노동을 할당하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연간 10주, 대학은 12~14주간 의무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국토통일원, 1989: 98). 인민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소년단을 중심으로 농촌자원사업(연 2~4회)과 '좋은 일하기 운동', '꼬마계획'사업 등에 동원되고 있다.

학생의무노동은 농촌지원, 경제건설, 좋은 일하기 운동, 꼬마계획, 각종선전대활동 등으로 나뉘어진다. 고등중학교와 대학의 경우 주로 농번기에의 모내기, 추수 등 농촌지원사업과 도로공사, 공공건물건설 등 경제건설사업에 부족되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반면 인민학교 경우에는 토끼기르기, 나무심기, 나무열매따기, 파지·파철·파유리 줍기 기타 폐품 수집 등 어린이들에 맞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운동장 정리, 교구 및 비품수리, 교실증축 및 수리와 같은 교내의 잡다한 일도 모두 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노동교육은 이런 사회의무노동 이외에도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해당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에 3개월간 배치되어 졸업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직접 생산노동에 종사해야 하며 대학 졸업반 학생들도

생산현장에서 1년간 육체노동에 참가하면서 졸업시험과 졸업논문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도흥열, 1982: 143~144). 게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공장, 광산, 농어촌 등 노동직장에서 2년이상 노동자 생활을 한 뒤에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차경수, 1978: 74).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의무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노동예비군'으로서 수시로 동원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학생노동원은 1973년도에 '3대 혁명소조'활동이 강화된 이후로 더욱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73년 9월부터 '6개년 경제계획'의 조기달성이란 명목아래 고등중학교 5년이상은 정상수업을 폐지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북한연구소, 1982: 40).

3)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교육

북한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한다는 국방의 자위원칙아래 전인민을 군대화하는 '전인민의 무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관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에게 군사교육과 국방체육을 실시하고 '교도대', '붉은 청년근위대'와 같은 청소년군사단체를 조직하여 정규군의 후속요원 확보와 군사력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조국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주의국가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건강하고 동원된 자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전투에 앞장 설 수 있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교육은 군사력 증강 이외에 사상교육의 목적도 추구하고 있는데, 군사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당과 김일성을 목

숨으로 사수하는 근위대, 결사대의 양성을 목표로 첫째, 국토방위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정신,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하고, 둘째, 김일성 유일사상에 입각한 혁명정신을 함양하며, 셋째 평시 후방지역의 방어와 전시 즉각 현역군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전술을 가르쳐 전체 청소년을 전투요원화하며, 넷째 인민군의 존재와 침략성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국토통일원, 1973). 북한의 군사교육은 고등중학교(고등반)와 대학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어서 '군사학'이라는 정규과목시간에 이론과 훈련을 동시에 교육받는다. 그러나 군사교육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각종 무회(전쟁놀이)를 통해 혁명정신과 투쟁성을 주입시키고 있다. 주로 모의편총을 휴대한 병정놀이, 편싸움, 미군표적에 대한 모의사격 등을 실시하며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고 군사훈련의 체질화를 시도하고 있다(김동규, 1990: 442).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중등반에서는 정식 '군사학'이란 교과과정은 없지만 각종과외활동을 통하여 예비적 군사훈련을 시킨다. 주로 매년하절기(4월~10월) 1회에 15일간씩 실시하는 소년단 야영훈련소 교육을 통해 준군사집체훈련인 '소년유격대' 훈련을 단체로 시킨다. 인민학교 아동들에게는 제식훈련과 포복, 응급처치, 숙영지에서 밤을 짓는 법을 가르치고 고등중학교 중등반에서는 제식동작 훈련을 끝내고 간단한 분대동작을 가르치면서 연간 1주일씩 야영훈련을 시킨다(북한연구소, 1982: 67). 고등학교 이상 즉, 고등중학교의 고등반과 대학에서는 '군사학'이라는 교과과정을 두고 군사교육을 남녀 구

별없이 부과하고 있다. 여학생들은 간호교육 외에 전술 기초를 익히고 기본적인 병기의 조작법과 사격술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군사교육은 '군사학 우위'의 원칙에 따라 군사이론과 훈련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사교육시간은 고등중학교(고등반)는 연간 1백 20시간, 대학은 연간 2백 40여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군사교육을 소홀히 하지 못하게 군사학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엄격히 통제한다. 군사학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예비관 자격을 주지만 불합격하면 학년진급과 졸업시험에 낙제하도록 하는 엄격한 교칙을 실시한다.

정규 대학의 군사교육은 인민무력부에서 파견된 현역장교, 기타 학교는 교육위원회 체육국 소속 예비역 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초학년은 기초적인 군사학으로부터 실시하여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전문화되고 수준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군사학의 주요내용은 정치학습을 비롯하여 제식훈련, 위병근부, 내무규율, 무기취급, 소대, 중대, 대대단위 훈련, 지휘통솔, 합동작전, 전술훈련, 과학적 훈련, 지휘에 관한 훈련 등이다(통일원, 1973).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가상전제하에 각종 종합작전 훈련, 실탄사격 등의 야영훈련이 실시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국방체육'이라는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체육의 목적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집단주의의 정신을 배양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단련으로 준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국토통일원, 1988: 139; 북한연구소, 1982: 67). 즉 사상교양의 일환과 군사력

강화라는 수단적 가치 측면에서 체육을 규정하여 체육을 여가 선용이라는 개인적 취미 활동으로서보다는 정치성, 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아래 군행정위원회의 체육구락부 주관하에 각 학교에서는 주 2~3시간의 체육시간과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제식훈련, 장애물 극복(외나무다리 건너기, 담넘기, 철조망 통과), 수류탄 던지기, 허수아비 찌르기, 강행군(오천보 달리기, 산악, 야지구보, 보행훈련, 만경대 달리기)등 초보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훈련, 즉 국방체육경기대회를 매년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에 개최하여 평가한다. 또한 집단주의 정신을 함양시킨다는 명목아래 집단체조와 카드섹션 및 각종 메스게임을 평소에 철저히 훈련시켜 각종 커다란 행사에 청소년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교육이외에 '전인민의 무장화' 추진을 목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준정규군의 성격을 가진 군사조직체를 결성하여 군사인력동원의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붉은 청년 군위대', '교도대', '인민정비대', '민간반항공기구'등으로 편성하여 준군사조직화하여 전쟁지도기관인 노동당 군사부의 직접 지도하에 인민무력부의 협조를 받아 정치사상으로 무장되고 군사적으로 단련된 인민군의 후비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국토통일원, 1989).

5. 청소년관련사업활동

북한에서는 인간이 갖는 가치관, 신념, 태도와 행동등은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발달하

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통제하고 계획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국 노동당을 비롯하여 가정, 학교, 동료집단, 직장, 군대, 대중매체, 사회단체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이나 사회조직들이 청소년육성과 지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로 상이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청소년관련시책들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청소년정책의 최대목표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가정, 학교, 직장, 군대, 사회단체 그리고 대중매체에 관한 시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가정

북한에서는 가족을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 단위로 규정하여(북한 가족법 제1조) 가족은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혁명적 사회세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전 사회를 혁명화 시키는 첫 단계로 '가정의 혁명화'를 부르짖어 왔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은 유교적인 가치관, 행동, 생활양식 등이 잔재되어 있는 '낡은 사상의 전수장'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물이 된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개혁시도가 집중되어 왔다. 전통적인 가족의 특수성을 소멸시키고 사회주의 사회에 적합한 가족을 형성하여 '가족'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토지사유제폐지, 재산상속제의 소멸, 농업집단화와 산업국유화 등의 사회주의 개혁정책으로 가족중심의 경제적인 기반을 빼앗아 버리고 인민반제도, 공민증

제도, 5호담당제를 강화하여 전통적인 가족개념의 말소에 주력해 왔다(도흥렬, 1978:134 ; 국토통일원, 1988:136). 또한 청소년 성장발달에 있어서의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켜 자라나는 세대들을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남녀 평등권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들이 각종의 사회활동과 조직생활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줄여서 아동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가급적으로 어린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적게 하여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녀 양육과 교육은 주로 탁아소 및 유치원, 학교 및 당의 외곽집단에 분담시켜 획일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가정정책은 전통문화의 온상지인 가정생활을 파괴하여 가정의 무의도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적 기능을 말살하고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학교의 교육기능을 통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가족적 영향이 쉽게 사라지지 않자 최근 공산주의 인간 형성에 있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모의 혁명교육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가정은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단위로서 부모가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어야만 아동도 그러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모들의 공산주의적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는 가정을 혁명화하여 가족생활 속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고하게 배양하여 가족생활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북한연구소, 1982: 4-5).

2) 취학전 교육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극소화하고 효과적인 집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기교육이 강조된다. 어린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 가서 의도적인 프로그램 아래에서 보육원과 교양원에 의해 철저한 교육을 집단적으로 받는다. 이러한 조기교육은 '어린이 보육 교양법(1976년 4월)'과 '사회주의 교육체계(1977년 9월)'가 채택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릴 때부터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를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양성한다는 취지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은 가정중심의 기존의 생활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어린이들은 가정보다 주로 또래집단에서 사회성, 정치적 규범 등을 집단적으로 훈련받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집단양육하는 탁아소는 일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 계절탁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데, 현재 6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3) 학교교육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성원이 모두 교육을 받아 일정한 지식 수준을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아래에서 정규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대단하다(도종수 외, 1990: 214). 학교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이라는 목

적달성에서 기본적 기능을 다하는 곳으로 규정 짓고, 학교교육을 정치적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진원중, 1978: 114). 이러한 관점에서 1년간의 취학적 유치원을 포함한 11년간을 완전의무교육과 무상교육제로 공평한 경제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여 공산주의적 학교교육은 통해 사회가 원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일찍부터 배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특정기관에 수용되어 계획된 집단적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일반 교육체계는 기본 학제상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의 4·6·4제로 되어 있다.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1년 과정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단계로서는 고등전문학교가 만 16세부터 2~3년, 교원대학이 3년, 종합대학, 단과대학, 공업대학이 만 16세부터 21세까지 4~6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은 지식과 기술교육의 교과교육, 정치사상교육의 교양교육, 신체단련과 군사훈련의 체육교육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당과 혁명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렬한 투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학교사업의 제 1차적 과제로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육을 모든 교과내용, 모든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 학교의 아동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정규적인 교과목 학습 이외에 소년단과 사노청과 같은 각종의 집단조직에 가담하여 정치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부도 부여 받고 있다. 학생들을 '당정책선전사업', '과학선전대', '예술선전대', '위생선전대', '학위선전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탈사대', '전염병예방대', '적화근위대', '3대혁명소조화

등(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같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4) 사회단체활동사업

북한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생활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집단조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단체들이 연령계층별, 성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배열되어 사회구성원들은 중첩적으로 동원되어 거의 각종 사회단체의 철저한 지도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조직생활을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로 보고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을 계획적인 공산주의 교육의 일부분으로 보고 청소년들에게 사회단체활동을 통한 조직생활을 강조한다. 청소년단체활동사업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의 주요과제로서 청소년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오늘날 청소년교육과 훈련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정치 사상적으로 단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 유아기부터는 탁아소 및 유아원과 유치원의 집단양육과 교육을 통해 동연배와의 조직생활에 익숙해진 후 ‘소년단(만 9~13세)’, ‘사노청(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 만 14~30세)’, ‘여맹(18~55세 전 여성)’,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붉은 청년 근위대’, ‘교도대’ 등 다양한 청소년 사회단체가 있다.

이러한 각종 청소년 사회단체는 공산당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정치노선을 선전하고 실천하는 당의 후비대의 역할을 하는 정치수단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결국 북한의 청소년단체들은 단순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아니라 혁명가로서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조직생활을 통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국가조직의 하나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는 공산주의 교육의 기본방향 즉, 전 인민의 공산주의화, 혁명화, 노동화의 노선에 따라 정치적인 당조직생활, 사상교육,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 노동애호사상 강조, 적에 대한 적개심, 혁명적인 성격교취, 선전선동, 자기비판, 집단토론과 결정 등 공산주의자가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체제지향적인 신세대’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경수, 1980 : 151).

북한의 청소년단체는 전체 청소년들의 생활 영역에 매우 넓고 밀접하게 퍼져 있어 이 단체의 영향을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과외활동이나 노동자들의 여가활동들이 대체로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사회단체는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데 학교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군대

‘인민의 군대’라는 이름아래의 조선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제 7장 46조)에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문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토통일원, 1991: 406). 이러한 당적, 혁명적 성격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북한 체제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와 연결되어 '김일성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선인민군은 기존의 정치질서 및 노동당과 김일성 주석에 의한 통치를 정당화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김영진, 1985: 94).

군대는 당(김일성)의 정치적 과업을 실현시키는 계급투쟁의 도구로 간주됨에 따라 군대에서의 교육은 정치사상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사업의 성패가 부대의 전투성과를 좌우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대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으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군인들에게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 당의 정책으로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려고 한다(국토통일원, 1975: 33). 특히 군대는 주로 공산주의나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무장이 덜 되어 있는 나이 젊은 층(17~27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신적 무장과 규율과 함께 주체적 혁명사상의 확립을 위한 집중적인 사상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인민군 내에는 노동당조직과 사노청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강이 조직되어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이 군인들 속에 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노청은 부대단위에 따라 조직되어 각급 노동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밑에 활동하여 비당원을 노동당의 지도밑에 결속시키고 있다.

6) 직장

북한의 모든 직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에서 노동당의 획일적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되고 모든 직장,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다(국토통일원, 1989: 60). 때문에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당과 정책기관의 조정, 통제에 의해 할당 배치된다. 또한 모든 일터와 직장이 일원적인 관리체제하에 있어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근무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직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욕구나 의사보다는 자신들의 성분과 당성(직장배치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정된 직장에 일관적으로 배정된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인력통제에 따른 불평불만과 태업적인 근무태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사상교육을 끊임없이 철저하게 실시한다.

또한 소위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천리마 운동, 속도창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적 노력경쟁운동을 실시하고 붉은 청년돌격대와 같은 각양각색의 돌격대를 조직하여 집단적 감시에 의한 노력의 집단화와 노력동원의 극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청소년들을 '직장교도대', '사노청',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과 같은 각종 조직에 이중 삼중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매일 책정된 작업책임량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각종회의, 학습, 노동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된다.

7) 대중매체와 문화활동을 통한 사업

대중매체와 문학예술은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사고와 행동 등 생활양식의 일반화와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가치관, 태도, 행동, 인격형성에 막중한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중매체와 문학예술을 혁명수행을 위한 사상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을 조직동원 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 주력한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서적, 잡지, 영화, 연극 및 전시적 예술 등 모든 대중매체와 문화활동은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당성', '계급성', '인민성'과 같은 사상성에 따라 통제된다. 대중매체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문화활동(문학, 예술)은 <문화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이 철주, 1965. 2). 당의 엄격한 통제하에 전달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오락성보다 사상교양 선전성을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것으로 김일성의 연설과 현장지도, 당정책의 선전, 문화예술의 사회주의 건설상, 영웅적인 노력경쟁의 성과, 북한의 국제적 지지획득, 공산주의 교양 및 대남비방 등으로 공산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와 문화활동은 정보와 자료를 직접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정보전달, 인민의 교양, 선전선동, 세뇌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결국 북한의 모든 대중매체와 문화활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에 전력하고 경제선동과 혁명에 이바지하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북한에 알맞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 공산주의적 가치관을 의도적으로 주입하는 대중매체와 문화활동의 영향을 일반적

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8) 해외교포사업

북한의 청소년 교육사업은 북한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 주로 재일동포의 자녀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재일교포의 거의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을 북한 지지자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통해 일찍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재일교포정책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1957년부터 해마다 상당액의 교육원조비를 일본으로 보내 교포자녀들의 교육을 통한 사상교육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실시해 왔다. 북한당국은 1957년부터 1990년 6월까지 교육비로 401억 2,568만엔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국보통일원, 1991: 396). 재일본조총련 학교체제는 오후 야간학교, 인민학급, 하기학급의 비정규체계,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정규교육체계 그리고 성인학교, 청년학교, 문화교실의 성인교육체제로 나누어져 있다. 1986년도 기준으로 유치반은 68개, 초급학교는 85개, 중등학교는 68개, 대학교는 1개(조선대학교)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김동규, 1990: 499~509). 또한 북한의 학교에서와 같이 '소년단 사연'과 '조선청년동맹'이라는 학생조직단체를 조직하고 과외활동으로써 '김일성 원수님 철명역사연구실', '김일성 원수혁명활동 연구실'의 연구도움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교육체계를 통해 민족동질성과 주체사상, 집단주의 가치관, 조국애를 함양하는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재일교포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계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를 통해 김 일성의 혁명전통사상과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 하고 이를 이어 받아 해외에서 혁명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북한 청소년정책의 이념과 목표,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기본방향, 그리고 청소년 관련시책 및 활동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데올로기의 편향성 : 청소년을 육성하는 목표를 청소년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여 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혁명화된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형성하고자 하는데 둠으로써 청소년정책은 이데올로기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되어 있다. 공산주의이념아래에 김일성 유일사상을 강조하여 주입하고 있는 사상교육이 최우선의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경화된 가치관으로 일관된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 정치성 : 청소년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목적은 청소년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한 정치적 목표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 청소년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통제하는 정치적 사회화작업을 철저히 집행하므로써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며 발전시키려고 한다. 결국 청소년정책은 공산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가 설정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의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강제적인 정치교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 집단성 : 청소년들을 하나의 개인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체제와 조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나 부분품으로 간주한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청소년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 모든 청소년들의 생활과 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화하여 개인적 사고와 행동을 막고 집단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탁아소 및 유아원, 유치원, 각급 학교의 정규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각종 정치, 경제, 사회단체 등 조직과 체제속에서의 집단생활을 통해 철저한 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적인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폐쇄성 : 모든 생활이 외부세계와 폐쇄된 사회체제하에서 생활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장발달하는 과정에서의 모델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전체를 위하여 개인주의가 철저히 배격되어 개인의 입장과 생활이 통제되며, 가정, 학교, 단체, 대중매체 등 모든 사회조직과 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율적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폐쇄되고 통제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원적 이념에 의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모델을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5) 획일성 : 공산당은 모든 형태의 청소년활동사업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한다. 정책의 이념, 목적, 내용 및 시행방법은 당에서 결정하고 인정하는 공식적인 이론이나 해석에 의

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사업은 노동당의 직접적인 주도와 계획아래 강력한 당성우위의 원칙에 따라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에서 획일적으로 진행된다.

6) 일관성 : 여러 영역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각기 그 개성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의 목표아래 서로 유기적으로 체계화되어 통합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정책들이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정치이념과 정치적 목표에 일치되는 획일화된 사상교육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실시한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정책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적내지 내용과 방법면에서 일원화되어 일관성있게 체계화되어 있다.

7) 연속성 : 청소년육성지도과정은 일생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다면적이고 연속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가정교육에서 시작해서 유아·유치원교육, 각급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 및 군대교육 나아가 대중매체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즉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전 연령적, 전 지역적인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일관된 작업으로 연속성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8) 총체성(종합성) : 청소년정책사업은 각양각색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배출하기 위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모두 적절하게 배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규학교수업 외에 노동교육, 군사교육, 집단주

의생활교육, 행사교육, 사회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등 각종 교육매체가 총동원되어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정책아래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북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하는나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는 북한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정책 자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 사회 특유의 정책의 결과로 산출되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청소년의 문제는 논리적 가치판단이라는 사회문제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청소년정책연구의 주된 쏠점은 북한 정치체제가 의도하고 추구하는 가치성향을(정치적 가치, 태도, 신념 및 기술 등)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고 내면화 되었으며, 또 그 결과 청소년들이 정치체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연쇄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 연구가 평가의 기준설정이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면에서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정책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집단체제 속에 집단적 충성심과 집단적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어 온 결과로 북한 청소년들은 언제나 개인과 국가간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긍정적인 연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즉 북한 청소년들은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으며 정부에 대한 일체감과 지

지도가 높다. 따라서, 당이나 체제에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누구나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고 싶다는 포부와 되겠다는 기대속에 적극적인 정치활동과 함께 당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결속된 힘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정책이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내외적인 사회변동, 내적인 사회구조의 모순 그리고 정책시행의 과실과 착오등으로 인해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때문에 북한 정치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이상적인 인간상, '공산주의적 인간'과는 달리 여러가지 갈등과 모순을 가진 일탈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정책을 우리의 이념체제 하에서 볼 때 목표 자체가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고 비판하여 정책의 결과를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다소 근거가 희박하고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이 앞서는 문제점을 앞세워 지적하는 것은 북한의 청소년정책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청소년정책을 연구할 때는 남북한 간의 상호대립 또는 모순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때, 우려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 청소년정책의 핵심이 체제이념으로서 북한의 개인과 국가 간에 높은 연쇄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여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남북한 간의 정통성문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6.25의 경험이 없고 탈이데올로기적 사조속에서 성장한 우리 청소년들

은 우리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여 우려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전통문화와 체제에 대한 인식도가 부정적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박용현, 1980:137).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남북대결과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주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면서 우리 체제를 고수하고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상대적 의지력과 능력을 어느 정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충남, 1980:66). 결국 체제경쟁의 측면에서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것은 북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민족의 이질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과 다른 정치적 이념체제 아래에서 실시되는 이질적인 정책에 의해서 북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행동양식이 남한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최종목표 아래 북한 청소년들은 당과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혁명적,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조형되고 양성되어 반남한적인 감정과 적화통일에 대한 투철한 의지를 가진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인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는데 많은 문제점을 주어 통일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과 태도, 특히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은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및 적대화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청소년들간의 동질성 회복이 무척 시급하다. 오늘의 현실이 국내외적 여러 요인에 의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남북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통일후계 세대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 무관심 속에서 실제로 가장 무방비한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민족의 장래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간 청소년들의 이질화, 적대화현상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우리 민족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즉,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감을 회복시켜 통일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통일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우리 민족의 사화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개인이나, 단체 또는 정부의 일개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한다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최고 통치자에서부터 정부부처 및 일반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국가적 차원의 보다 큰 관심과 함께 실로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책 그리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배치들이 수반되어야 비로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청소년과 제반 실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남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육성되고 어떠한 의식구조, 특히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연구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들간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평화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추세”,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4), 168~195.
- 국토통일원(1971), 북괴사상교육내용과 그 분석.
- 국토통일원(1973),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분석.
- 국토통일원(1975), 북한의 교육과 정치사상전력.
- 국토통일원(1981. 8), 북한 노동당 및 외곽 단체인황.
- 국토통일원(1988), 남북한 비교총서
- 국토통일원(1989), 남북한 사회문화현황비교.
- 국토통일원(1991), 북한개요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1991), 북한의 정당·사회단체현황, 통일총서 14.
- 김갑철외(1990), 북한학개론—북한 사회주의 현재와 미래. 문우사.
- 김정웅(1990. 5), “정치사상교육의 이론과 구조적 특징”, 북한. 54~63.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백사.
- 김병원(1986), 북한의 대학교육, 국토통일원.
- 김성원(1980. 9),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 북한, 128~147.

- 김성원(1980. 10),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I)” 북한, 182~196.
- 김성원(1980. 11),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II)” 북한, 147~163.
- 김성원(1980. 12), “북한의 교육 및 가족정책 (IV)” 북한, 168~181.
- 김영숙(1985),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에 관한 연구:고등중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1985), “군부의 정치적 역할”, 김준엽외, 북한의 오늘과 내일, 93~105.
- 김일성(1963),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 _____(1971),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한 데 대하여”, 전국 교원 대회에서 한 연설.
- _____(1986), “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준엽·스칼라피노(1985), 북한의 오늘과 내일(증보판), 서울:법문사.
- 김충남(198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61~112.
- 김형찬(1988),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 남인숙(1990), 북한의 사상교육:발달과정과 전망,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 도종수·김미숙(199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과정비교”, 통일원,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종합평가, 193~280.
- 도홍렬(1977),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 과정 비교,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 도홍렬(1978),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4), 123~167.
- 도홍렬(1978. 8), “북한 해방세대의 의식구조”, 북한, 124~133.
- 도홍렬(1978),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형성 과정 비교, 서울:국토통일원.
- 도홍렬(1982),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실태, 북한연구소.
- 도홍렬·이병혁·이온죽(1988),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국토통일원.
- 로동신문(1982. 6. 6),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 위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 사설.
- 문용린(1990), “교육제도와 정책”, 최명외, 북한개론, 서울:을유문화사, 383~414.
- 박문갑(1989), “북한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1990), “북한의 교육체제와 정치사회화”, 김갑철외, 북한학개론-북한 사회주의 현재와 미래, 서울:문우사, 259~302.
- 박상태(1991), “북한인구의 구조와 변화:남북한의 비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22집, 21~53.
- 박석균(1986), “북한 경제정책의 사상과 제도”, 북한연구소 북한학회, 북한학보 제10집, 85~105.
- 박완신(1988), 북한행정론:관료체제와 행정형태, 서울:희성출판사.
- 박완신(1989), “북한의 행정체제와 지방조직 체제”,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2), 93~135.
- 박용현(1973), 북한의 사상교육실태, 국토통일원.
- 백완기(1989), 북한의 행정기능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북한연구소(1986. 11), “한국학계의 북한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북한관계 석·박사학위 논문목록”, 북한연구소, 북한, 152~161.
- 북한연구소 연구부(1982. 11),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실태”, 북한, 60~83.
- 변진홍(1982, 6), “북한 청소년과 인간개조실태”, 북한, 120~129.
- 서성우(1990), “노동당과 사회단체의 관계”,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안보연구 19권, 171~190.
- 양호민외(1987), 북한사회의 재인식 1, 한울.
- 유석렬(1988), 북한 정책론, 서울:법문사, 108~166, 353~385, 403~456.
- 이계희(1989), “북한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국토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1), 226~249.
- 이규호(1980), “국민 정치 교육”,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6(1), 7~18.
- 이서행(1980. 8),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분석”, 북한, 159~173.
- 이온죽(1986. 8),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분석—로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통한 북한 사회변동의 추적, 1952~85”,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8(1), 303~327.
- 이 중(1987), “집단주의적 교육체제: 그 규범과 운용”, 고현옥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81~337.
- 이호준외(1989), 북한의 정치체제와 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이홍구(1982), “북한연구의 학문적 과제”, 김준엽·스칼라피노(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법문사, 9~19.
- 정세구(1983, 7), “북한의 청소년 사상 교육방법”,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5(1), 227~252.
- 정현수, 이 동선(1990),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동과 권력승계의 전망”, 통일원,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1)정치분야, 103~181.
- 주상룡(1984),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원중(1978),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 정책”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4), 97~121.
- 차경수(1978), “공산주의 교육과 정치 사회화 과정”,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3), 65~78.
- 차경수(1980, 2), “북한의 교육내용과 현황”, 북한, 58~68.
- 차경수(1980), “청소년에 대한 남북한 교육정책 비교”, 국토통일원,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113~178.
- 차경수(1980. 2), “북한의 교육이념과 기본정책”, 북한, 북한연구소.
- 체육부(1988),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 최영균외(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